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5
vol. 55

Spring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5년 봄호

시론

- 3 여름의 따가운 햇살도 겨울에는 그리워지는 것
최성철(40회)

제25대 회장단 인사말

- 4 동문회 운영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시간 의견교환으로 소통 활성화
김정수(26회) 동문회장

- 5 집단 지성으로
최고의 약대 동문회를 만듭시다!
김인혜(29회) 여동문회장

- 6 제25대 회장단

동문회소식

- 8 화보

- 11 김정수 회장 뉴스위크 소개

- 12 재학생대상 中藥 진로콘서트 개최
2024 중앙 진로 콘서트 개최
김태수(58회) 청년위원회

- 14 날씨, 즐거운 동반자,
정직한 플레이가 모두 충족된 행사
202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
구영준(41회) 동문골프대회 준비위원장

- 17 동호회 운영에 효율성과 개방성 강화,
세대간 교류 증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8차 정기총회

동기회소식

- 20 학창시절 생각하며 젊어진 기분으로
약대 8회 동기회 졸업 60주년 기념식
조익환(8회) 동기회장

- 22 8회 동기회 졸업 60주년 기념행사를
뒤로하고
조현인(8회)

- 24 예쁜 가을 속,
짧은 듯 긴 하루 나들이 이야기
약대 18회 졸업 50주년 기념
한마음 가을 여행기
김중기(18회)

문학산책

- 28 신짜오 비엠티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별난동문이야기

- 33 과학수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국과수 독성학/마약 분야 전문가인 약사
김소현(52회)

약국도움이야기

- 25 무균 의약품 제조 공정 중 오염관리
Contamination Control
조동환(45회)

학교소식

- 38 · 조중래 늘겔에라이프온(주) 대표,
발전기금 1억 쾌척
· 삼진제약 조익환 회장 기부 발판 약학대학 3층
'조익환 라운지' 조성, 헌판식 개최
· 약학대학, '손의동 홀' 헌판 기증식 개최...
손의동 명예교수의 모교 사랑 기려

- 41 약학대학 발전기금 현황

- 42 회비내역

- 44 장학기금

- 45 만평

- 46 편집후기

여름의 따가운 햇살도 겨울에는 그리워지는 것 - 30년지기 친구 '졸업' 에게

졸업아! 벌써 30년이구나.

너와 처음 만난 게 벌써 30년이라니, 세 번의 강산이 변했어도 그때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머리엔 하얀 눈이 내리고 이마엔 골짜기가 생겼구나. 1996년 겨울 끝자락 너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과 당찬 의지를 선물해 주었지. 지금도 의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지만, 네가 주었던 그 마음과 뜻만은 잊지 않으려 한단다.

졸업아! 4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선배님과 후배님들. 지금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잘 지낸다는 소식엔 기뻐하며 힘들다는 소식엔 마음이 무겁더구나. 소식이 닿지 않는 친구들도 어디선가 잘살고 있으면 좋겠어.

졸업아, 가끔 학교를 찾으면 많은 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영신관 난로의 온기, 루이스 가든의 따스한 봄 햇살, 라일락 향기가 퍼지던 중앙도서관 앞길, 단풍 아래 오르던 계단, 눈 내린 청룡 연못의 겨울 풍경...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푸르름이었고 찬란한 햇살이었지. 학교 앞에서 가끔 만난 친구들과 선후배를 보면 그 시절의 호프집 냄새와 먹자골목의 고기 냄새도 떠올라. 못하는 소주 한잔에 반주도 없이 노래하였지만, 함께 울고 웃던 우리는 그야말로 '캡'이었지!

졸업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많은 선후배님들과 친구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 어려울 때 나타나 함께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던 모습, 어깨를 토닥이며 힘을 주던 그 따뜻함은 의혈 중앙의 약사로서 자랑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야.

졸업아, 네가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우리는 변치 않을 거라고, 세상 끝에 먼저 가고 나중 가도 즐겁게 웃으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 줄 것이거든. 때론 다투고 찡그리기도 했지만, 여름의 따가운 햇살도 겨울에는 그리워지는 것이잖아.

그때의 우리, 정말 다시 보고 싶다.

졸업아, 너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최 성 철(40회)



동문회 운영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시간 의견교환으로 소통 활성화



김 정 수(26회)
동문회장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8년 입학하여 1982년 제26회로 졸업한 김정수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동문회의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저와 함께 입학한 78학번 동기생 전원을 부회장단으로 추대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합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동문 간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동문 전용 SNS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실시간 소통 강화

동문회 전용 SNS를 도입하여 동문 간 소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실시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온라인 동문회관을 마련하겠습니다.

2. 젊은 동문 참여 확대 및 세대 간 교류 증진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동시에 선배님들을 더욱 예우하여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 전국 단위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계신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접 찾아 뵙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4. 동문회의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

동문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운영 경비의 자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선배님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개정되지 않았던 회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모든 동문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공유한 후, 오는 3월 29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임시 총회 및 초도이사회를 개최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문회의 발전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 지성으로 최고의 약대 동문회를 만듭시다!



김 인 혜(29회)
여동문회장

안녕하십니까?

여동문회장 29회 김인혜 인사 드립니다.

학교를 졸업한지 30여년 후 학교교정을 밟으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게됨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해주신 동문회 관계자 여러분 학장님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약학대학 여동문회는 중앙대 약학대학 역사와 함께 하였으며 그간 동문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주신 여동문회 고문단님과 선후배 여동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동문회 기수내림에 진통이 있었지만, 저는 젊은 기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동문회가 화합 발전하는데 학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섰으니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동문회는 동문 선후배를 잘 연결하고 소통하며 중앙의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하고 여동문들이 약계에서 리더로 활동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동문회에 자부심을 갖고 만나면 편안한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는 여동문회가 되어 김정수 회장님과 더불어 동문회 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약국경영에 힘쓰며 지내다가 약사회 회무를 맡게 되면서 중앙대의 저력과 자랑스러움을 등에 업고 중구약사회 분회장으로 일하며 학교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대 동문회로서 그간 약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중앙인들에게 지난해는 뼈아픈 교훈의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다시 화합하고 아픈 곳을 봉합하며 전열을 가다듬어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아직 우리에게서 젊고 능력있는 후배들이 많이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선배님들과 우리들이 그들을 껴서 보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문회 발전을 위해 애정과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고 동문회에 참여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학교건물도 아니고 슬로건도 아닌 서로의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또한 동문의 힘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집단 지성으로 최고의 약대 동문회를 만듭시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삶속에 항상 평안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5대 회장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회장	26회		김정수	부회장	26회	조용백, 조필연, 조한미, 진희역, 최교석		
						최태영, 하재일, 황완균, 황원선, 최민규		
						최옥숙		
여동문화장	29회		김인혜		27회	곽나윤, 박영달, 한봉길		
						28회	구영삼, 김재영,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수석부회장	26회		한갑현		29회	강춘원, 류형준, 우종오, 이강현, 이종민		
						장병근, 장승학, 정진호, 강대용, 김형수		
						이종욱		
사무총장	41회		이종혁		30회	김광식, 이장무, 천세영, 최병원, 최병태		
				31회		심명섭, 이해정		
						32회	김신규, 김익수, 임형미, 정선중, 조양연	
사무부총장	41회		김정민		33회		김정태, 신명수, 이정수, 조준상, 조호원	
				42회		김보원, 한일권, 민성일		
						35회		이경선, 김 진, 은형주
사무부총장	42회		박상근	36회	김명호, 박종구, 우경아, 임기민, 임성호			
					62회	진창연, 함인혜		
						38회		김병욱, 진정주
부회장	26회		김준하	39회	이정근, 한은경			
					40회	최성철		
						41회	구본웅, 이 신, 최명수	
					42회		이광희	
						43회	김만석, 김준식, 이경은, 장동훈	

제25대 감사단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23회	서동철	24회	이광섭	25회	최두주

제25대 상임위원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공직	36회	김명호	약국	41회	최명수, 최진희, 김소연	제약	63회	고안나
	58회	안민지		42회	윤지연	병원	65회	남해민, 박보연
교수	39회	민경훈		45회	조은구	청년	63회	김정호
	46회	이지윤		63회	김혜진, 김소라		65회	신효은
	54회	조재범		66회	김현아		66회	장정호, 박은송
법조	36회	정순철(변호사)	제약	40회	황세은		67회	이현수
투자	43회	안정란(변리사)		41회	김준일, 구본웅	기타	40회	정병찬
학술	57회	서해준		44회	양미선, 손형운		41회	천경석
약국	38회	김병욱		47회	김희정		43회	김만석
	39회	민필기		50회	오주영		44회	양정미
							45회	고기현

제25대 이사

1회	홍흥만, 박학전
2회	김종옥, 신양균, 이문규, 정덕화, 황재수
3회	강승조, 박종순, 배영식, 선우연, 손석우, 안경식, 이병균 최종묵
4회	김현용, 김흥수, 안국영, 이창우, 허인회
5회	강태일, 김상오, 김영배, 김재윤, 윤원영, 정훈교, 조동준
6회	김경희, 김동열, 김태형, 박정배,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유승균, 임완호, 전희태
7회	김영일, 김정부, 박명신, 박숙자, 배동운, 신완균, 용영일 유영후,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정재일, 정조원, 최준자
8회	김돈기, 김신자, 김홍자, 박도규, 박번일, 박재웅, 배영애 오창중, 이백천, 조의환, 최영자, 한석원, 허근희, 허청욱
9회	김영빈, 문영동, 박성학, 박장우, 윤광노, 이규진, 이근배 최영근
10회	김명민, 김영호, 방순환, 심수일, 유정사, 이원일,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신명승, 이철규, 정덕호, 황공용, 황문상
12회	남기탁, 노덕재, 노석준, 박영찬,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관하, 이성우, 이정구, 이호섭, 이효훈, 조택상
13회	구연홍, 김종성,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엄계숙, 윤해선 이상길, 이충식, 임유재, 최창엽, 최호순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용, 김원순, 김윤국, 김종열, 신광근 양인승, 윤대봉, 정도언, 조길도, 조병화
15회	경명호, 고동석, 김용의, 박석동, 박원봉, 오세일, 원장희 윤종준, 이상용, 이영운, 임영식
16회	권영복, 백승복,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범준 이은솔, 이은주, 조기현, 차동일, 최광식, 최창원, 하상권 한인희, 허사길
17회	김성택, 김인형, 선우영환, 신상직, 이완철, 장재인, 전상훈 전선영, 전우준, 정대진,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김애경, 이원재, 임종진, 전광우, 정명진, 조중형
19회	권창호, 김경오, 김재민, 김행소, 남상구, 박효식, 안병호 옥태석, 윤건섭, 이경옥, 이창욱, 임종철, 장호성
20회	김현태, 권오규, 김영식,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이영희
21회	김대일, 김동연, 김수배, 김중효, 양주석, 한상윤, 한성희 한찬수, 홍종오
22회	강희윤, 고석순, 김홍진, 박동우,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명욱, 이정석, 이준상, 이진우, 이현희, 전일수, 차달성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23회	강한구, 권석형,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서동철 윤명숙, 이계석,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정중서, 조병훈 조종호, 천경호, 최의한, 하충렬, 홍순욱

24회	정상수, 박관수, 이광섭, 이규삼, 최재윤, 함삼균
25회	김춘규, 고성권, 김완기, 김희섭, 백광현, 성낙순, 이광인 이내홍, 이민원, 이종인, 조순현, 김광호, 문태화, 이현수 최두주
27회	윤영한, 김덕진, 민병희, 박수길, 변옥희, 서평석, 오순용 오홍설, 유재수, 이원일, 최기선, 최종대, 최충식, 현기원
28회	강철순, 고재호, 김유곤, 신영무, 유희동, 이병천, 이숙희 전금용, 정원태,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한용문
29회	엄재우, 한일룡, 유종운, 손병로, 박웅삼, 이준, 강춘원 현상배, 하숙량, 서경원, 김은진
30회	정의차, 고석일, 김성배(김해승), 김연하, 김정일, 김혜수 신일균, 백영주, 윤미숙, 이진우, 현익상, 홍성광, 김상의
31회	변동성,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노
32회	박병호,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33회	강기석, 김영재, 김은곤, 이용석
34회	이선민, 문정인, 임현주, 신수민, 김사경
35회	임종식, 손은경, 송지숙, 오창현, 홍춘택, 황광우
36회	변의주, 김정란
37회	장미경, 김학선, 안의성, 이정우, 박미경
38회	최은영, 김인성, 이강국, 임항숙
39회	민필기, 권성렬, 박성훈, 방근철
40회	이병두
41회	최진희
42회	정원석, 민지홍, 정동만, 최종진
44회	이선영
45회	조은구, 김권식
48회	차자현
49회	김성근
50회	남윤성
51회	문효진, 김홍진
53회	강형규, 김영민
54회	임재춘
55회	김성태, 김민성
56회	이경민
57회	서해준, 김윤, 주혜진
59회	이기철
60회	한석경
61회	정영섭
62회	김준하, 박영호
63회	오교빈
65회	홍순호
66회	조영석
67회	차호영

01

02

03

04



9월 11일_ 조중래(24회) 동문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부식

9월 21일_ 약학대학 재학생을 위한 진로콘서트

9월 23일_ 조의환(8회) 동문 약학대학 3층 라운지 현판식

9월 29일_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2024년도 골프대회





01

11월 16일 손의동(22회) 명예교수 '손의동 홀' 현판식

02

12월 7일 서초분회 모임

03

12월 22일 32회 동기회 송년모임

04

1월 15일 감사 수감

05

2월 26일 충주동문 모임





- | | |
|----|----|
| 01 | 02 |
| 03 | |
| 04 | 05 |



3월 1일_ 여동문회 임원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3월 7일_ 제천동문 모임

3월 11일_ 조찬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약업대상 수상

3월 13일_ 상임이사회

3월 21일_ 대전지부 정기총회



김정수 회장 뉴스위크 소개

우리 약학대학 동문회 김정수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High Tech Pharm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가 최근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Newsweek에 게재되었다.

FAST-FORWARD TO GLOBAL MARKETS: INSIDE ASIA'S NEW CORPORATE MINDSET

SPONSOR INSIGHT
Korea Shapes the Future of Antibiotics
BY DANIEL DE BONFORD
NEWSWEEK IS A TRUST PROJECT MEMBER

Created For | SHARE

Did you know that back in the 1980s and '90s, when South Korea was on the road toward becoming—but had yet to become—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powerhouse it is today, the country led the world in the production of penicillin and cephalosporin antibiotics?

Flash forward to 2024, and while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continues to face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hallenges like fragmented government policies, it has witnessed one of the fastest growth rates in the world over the past decade. Pioneering drug development just as the country did 30 to 40 years ago, Korean pharmaceutical firms like High Tech Pharm have laid the foundations to become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By combining these advanced technologies, automation and a commitment to quality, High Tech Pharm is ready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antibiotics, particularly amid the rise of multi-drug-resistant bacteria.

Jeong-soo Kim, President, High Tech Pharm Co., Ltd.
Credit: Courtesy of High Tech Pharm Co., Ltd.

"Our goal is very simple: To ensure quality of life by improving human health."

Jeong-soo Kim, President, High Tech Pharm Co., Ltd.

Founded in 1998, High Tech Pharm has grown into a leader in the manufacture of antibiot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specializing in carbapenems. Its state-of-the-art Chungju plant, which began operations in 2018, serves as a prime example of the company's commitment to innovation. The plant features advanced automation systems, including an integrated computerized system (SCADA system) of chemical tanks and cutting-edge quality control technologies. CEO Jeong-soo Kim explains the importance of these systems: "By automating the entire process from raw material input to finished product production as a closed system, not only are all processes standardized, but also the source of contamination caused by sterile workers is eliminated." This level of automation ensures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pharmaceuticals that meet the rigorous standards required for global markets.

The company's flagship products, such as carbapenems, are essential in the treatment of severe infections, above all those caused by multi-drug-resistant bacteria. While High Tech Pharm's current production capacity is sufficient, Dr. Kim emphasizes that the company is prepared to expand should the demand rise. "We are working to improve our manufacturing process to produce higher-quality medicines for the future and have plans to expand in response to a potential surge in demand," he states. The company is also exploring parallel product lines to complement its existing offerings, positioning itself to adapt to future market needs.

High Tech Pharm's growth is driven by its commitment to producing the best possible medicines. "We focus more on 'how to reliably produc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rather than 'how to increase sales and generate profits,'" the CEO says. This focus on quality over profits has allowed the company to build strong partnerships, including a key collaboration with ACS Dobfar S.p.A., an Italian pharmaceutical company that holds a 40-percent stake in High Tech Pharm. Through this partnership, High Tech Pharm gains valuable insigh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across the European, U.S. and Asian markets.

Non-sterile plant. Credit: Courtesy of High Tech Pharm Co., Ltd.

Despite the advantages of automation and innovation, High Tech Pharm, like many of its peers, faces fierce competition from manufacturers in China and India, who benefit from lower labor costs and larger-scale operations. Additionally, entering highly regulated markets such as the U.S. and Europe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with long approval timelines and stringent manufacturing standards. However, Dr. Kim remains optimistic, particularly after its Chungju plant received FDA approval in 2023 and EU approval in 2024, which are the important steps in entering the U.S. and European markets. He also sees growth potential in emerging markets, including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and Russia.

Overview of Chungju plant. Credit: Courtesy of High Tech Pharm Co., Ltd.

The ongoing rise of multi-drug-resistant bacteria, including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has heightened the urgency for new antibiotic development. With rigorous contamination control measures in place, such as isolated production facilities and closed systems, High Tech Pharm is well-equipped to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antibiotic resistance.

As High Tech Pharm celebrates nearly 26 years in business, the company's focus will remain on improving global health through high-quality pharmaceutical production. "Our goal is very simple," Kim says. "To ensure quality of life by improving human health."

본문 요약내용

1998년 설립된 High Tech Pharm은 카바페뎴을 전문으로 하는 항생제 원료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로 성장했으며, 2018년 가동을 시작한 최첨단 총주공장은 통합 컴퓨터 시스템과 최첨단 품질관리 기술을 포함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수 대표는 이러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원료 투입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을 폐쇄형 시스템으로 자동화함으로써 모든 공정이 표준화될 뿐만

아니라 무균 작업자로 인한 오염원도 제거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동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High Tech Pharm의 성장은 가능한 최고의 의약품 생산하려는 노력에 의해 주도됩니다. 김대표는 "우리는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보다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

산하는 방법'에 더 집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High Tech Pharm이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회사의 초점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통해 세계인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계속 맞춰질 것입니다. 김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재학생 대상 中藥 진로콘서트 개최

공직, 회사, 병원, 약국파트 선배약사 특강



2024년 9월 21일 및 9월 2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10년 미만의 30대 졸업생들이 각 파트별(공직, 회사, 병원, 약국) 진로콘서트 행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동문회 청년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준비를 하였고, 동문회에서 행사 비용을 일체 지원해주셔서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행사에서의 재학생들 피드백으로 공직과 회사의 더 다양한 파트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올해에는 두 파트에 대해서 더 다양한 파트들의 연자분들을 섭외하였습니다.

장소는 약학대학 건물 3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였고 장소 섭외 및 강연에 대한 수요조사 등은 현재 중앙대 약대 학생회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9/21(토) 60명, 9/28(토) 90명으로 도합 약 150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각 진로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 태 수(58회)
청년위원회



강연자로는 공직 파트 59회 양대형(보건복지부 5급 사무관), 58회 안민지(식약처 6급 주무관), 64회 배동헌(식약처 7급 주무관), 약국 파트 58회 김태수(독산중앙약국) 그리고 회사 파트 59회 이창두(파마리서치), 61회 김소민(한미약품), 62회 김준하(파마리서치), 63회 고안나(대웅제약) 및 병원 파트 61회 정송애(서울성모병원) 동문을 섭외하여 현재 재학생들의 졸업 후 5~10년차 선배약사들의 현실적인 활동 및 각 진로별 진입시 고려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배약사들이 직속후배들에게 각 직군에 대한 장단점 디테일하게 전달

각 진로 파트 세분화로 재학생 질문 좀 더 구체화 성과

두 날짜에 걸쳐서 13시부터 18시까지 각 파트별로 40분씩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각 파트별로 강연발표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 사전 공통 질문들을 받아 해당 질문에 대해서 연자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강연 이후에 행사 당일 참석하는 재학생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각 진로 파트를 더 세분화하였더니 각 파트에 대해 재학생들의 질문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더 도움이 많이 되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구나 강연 대상자들이 직속후배들인 만큼 각 직군에 대한 장단점을 디테일하게 전달할 수도 있었고, 덕분에 학생들이 고민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비교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다가 5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학생들이 참석해서 강연을 들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 이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후기 설문조사 내용 관련해서는 정리하여 동문회 상임위에 보고하였고, 관련 후기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할 선배들의 직군에 대한 솔직한 내용들을 각 파트별 직무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너무나 알찬 내용을 졸업반이 아닌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 중앙대 재학생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등이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졸업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더 많아져야 재학생들이 ‘왜 중앙대 약대가 전국 최고의 약대인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동문회 청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러 활동 및 행사를 통해 동문회의 일원으로 중앙대 약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즐거운 동반자, 정직한 플레이가 모두 충족된 행사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상쾌한 가을 분위기 속에 127명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인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동문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체육대회에서 골프를 독립시켜 탄생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를 코로나 이후 2022년, 2023년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프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두 번째 맞이하는 대회라 진행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한 법, 작년의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반면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행사 때 식당이 협소해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에는 좀 더 넓고 좋은 골프장을 섭외하기 위해 봄부터 여기저기 수소문했지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받아주는 곳이 드물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모이는 동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히든밸리 CC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에서 중요한 건 좋은 날씨와 즐거운 동반자 그리고 정직한 플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동문 골프대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대회라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데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는 청명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씨였고, 조 편성에 진심인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동반자를 조합해 주셔서 즐겁게 라운딩할 수 있었으며, 실력까지 겸비한 동문들의 정직한 플레이는 부연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명품 동문회 골프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정상수 동문회장님과 행사 시작과 끝을 준비해 주신 임성호 총무님, 실장님을 비롯해 안내를 도와준 약대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 당일 로비에서는 동문 선후배님들의 후원으로 준비한 선물을 수령할

구 영 준(41회)
동문골프대회
준비위원장





수 있었으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접수와 진행으로 중앙대 약대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념 촬영 후 샷건 방식으로 30팀이 동시에 티오프 하였고, 필드 곳곳에서 명품샷을 축하하는 ‘굿샷’ 외침이 가을 오후를 가득 채워주는 라운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시상자 명단을 정리하였는데, 28명의 동문님들이 싱글플레이어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한바 다시 한번 중앙대 약대의 실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베스트 드레서에 선정된 유정사(10회) 동문님을 시작으로 다보기상에 김정수(26회) 동문님, 다파상은 구영준(41회), 다버디상은 고성호(37회) 동문님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멀리서 오신 동문님들을 위해 장거리상을 신설했는데, 부산에서 오신 조종래(24회), 이영주(24회) 동문님과 포항에서 오신 김진(35회) 동문님, 허인회(4회) 교수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장타상은 245m를 보내신 한일권(34회) 동문님과 190m의 이영숙(35회) 동문님이, 니어상은 70cm 붙이신 은형주(35회) 동문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준메달리스트(스코어 2등)은 이경준(32회) 동문님이, 여자 1위는 72타를 치신 이강옥(26회) 동문님이, 메달리스트에는 박병섭(26회) 동문님이 수상하였고, 대망의 우승에는 박상규 총장님께서 수상하셔서 푸짐한 상품을 받아 가셨습니다. 특히 박상규 총장님께서서는 우승을 예상하셨는다는 듯(?) 골든볼 골프공 3개 세트를 준비해 오셔서 3분께 추첨으로 행운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번외경기로 분회별 동기회별 우승팀을 가리는 행사도 진행했는데, 분회 우승은 용인분회 동문님들이 수상하였고 동기회는 26회 동문팀이 우승하여 상금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수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최다 참가상인데 최다 참석한 동기회는 12명이 참석한 24회 동기회가, 최다 참석한 분회는 10명이 참석한 용인분회가 각 50만원씩 상금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시상 중간에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여 소외되는 동문님들이 없게 푸짐한 상품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이번 중앙대 약대 동문 골프대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한약사회 최광훈(22회) 회장님과 약학정보원 김현태(20회) 원장님, 경기도약사회 박영달(27회) 회장님, 유정사(10회) 고문님, 장재인(17회) 고문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박상규 총장님, 신현국 총동문회장님, 황광우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라운딩을 함께 해주신 허인회(4회) 교수님과 김창중(11회) 교수님을 비롯한 명예 교수님들과 현직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올해에도 보다 많은 동문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명품 골프대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벌써 가을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202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골프대회 수상자



개인 시상내역

우승(신페리오)	박상규 총장	다버디상	고성호(37회)
메달리스트	박병섭(26회)	다파상	구영준(41회)
여자1위	이강욱(26회)	다보기상	김정수A(26회)
준우승	홍순욱(23회)	장거리상	허인회(4회) 부산
준 메달리스트	이경준(32회)		조종래(24회) 부산
니어상	은형주(35회)		이영주(24회) 부산
장타상	남)한일권(34회)		김진(35회) 포항
	여)이영숙(35회)	3위 (신페리오)	조준상(33회)
행운상	이길만(20회)	베스트 드레서	유정사(10회)

단체전

동기회	우승	26회 동기회
	준우승	30회 동기회
	3위	31회 동기회
분회	우승	용인분회
	준우승	안양의왕군포분회
	3위	부천분회
최다참가 동기회		24회 동기회
최다참가 분회		용인분회



동문회 운영에 효율성과 개방성 강화, 세대간 교류 증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8차 정기총회

신임 동문회장에 김정수(26회) 동문
여동문회장에 김인혜(29회) 동문 선임



국내외적으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못한 시간이 계속된다. 입춘 추위가 유달리 살을 에는 듯하게 엄습하는 것이 꼭 수은주 눈금 탓만은 아니리라.

지난 2월 8일 청담동에 위치한 리베라호텔 몽블랑홀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8차(2025 회계 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연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후유증이 제법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동문들이 실망감과 함께 총회 참석을 기피하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이 당연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걱정이나 비판적인 태도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무지한 과오 앞에서 오직 부끄러울 뿐,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애정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로 치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문회 창립 이래 크고 작은 수많은 난관과 과제를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이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맹추위를 무릅쓰고 동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동문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장대행을 맡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광섭 수석부회장을 위시하여 이규삼, 임무호, 최영욱, 함삼균 수석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한 눈길을 보내며 행사장 입구에서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지금은 없던 힘도 내야 할 때,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날 총회는 24대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고 25대 새로운 동문회장을 뽑는 의미 있는 자리이면서 동문회 1년 살림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의 준비를 다짐하는 실무의 장이 되어야 하는 자리다.

전체적인 진행은 임성호(36회) 사무총장이 맡아서 수고를 해주었다.

정상수(24회) 회장이 많은 업적과 성과에도 부득이 사임하게 된 배경 설명과 함께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한 **이광섭(24회) 회장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새롭게 함께하는 커넥팅 동문회를 슬로건으로 골프대회와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13억원에 이르는 개교 70주년 발전기금의 성공적인 조성을 바탕으로 약학대학 역사관, 새로운 실험실, 디지털 강의실, 스터디 카페 등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모교 위상을 높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구성될 25대 집행부가 열정





적이고 참신한 자세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바란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은 전남도약 총회 참석으로 같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최두주(25회) 부회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중앙대 약대 동문의 일원으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약사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해 왔으며, 저를 믿고 약사사회를 맡고 끌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여 약사사회를 추동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40대 대한약사회장을 영예롭게 마무리하는 입장을 정리했다.



황광우(35회)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최근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약학분야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인재상을 가지고 재학생들을 교육 및 훈련하여 신규 약사를 양성할 것이며, 동문들의 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와 동문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소중한 공동체로, 비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히 다져지는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이 축사를, 신현국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이 격려사를 통해 중앙대학교 내에서 약학대학의 위상과 기여에 감사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남겼다.

공식행사의 2부에서는 회무보고와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24회계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25회계년도 사업계획(안), 2025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5회계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핵심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의 중요한 사안인 임원 선출에서 제25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 동문회장으로 김정수(26회)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지난번 총회에서 동문회 회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임기 1년 이내에 차기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선임된 김회장이 전임 이광섭 회장대행으로부터 약학대학 교기를 전달받아 힘차게 휘두르며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김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회 운영에 효율성과 개방성을 강화할 것이며, 동문 전용 SNS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소통과 함께 세대 간 교류를 증진할 것”을 천명했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박희용(23회) 동문회보 편집위원
조중래(24회) 늘곶에라이프온 대표

총동창회장 공로패



류형준(29회) 에스킨 대표
임형미(32회) 중앙대병원 약제부장
강석연(33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학장 공로패



방근철(39회) 제일365온누리약국 대표
구영준(41회) 캠퍼리지5총약국 대표

동문회장 공로패



전광우(18회) 청룡중앙약국 대표
최용철(28회) 구리종로약국 대표
이강국(38회) 늘푸른하늘약국 대표
김태수(58회) 독산중앙약국 대표
조수만(약대 6학년) 약학대학 홍보대사 '파람'

이어진 감사 선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여러 명의 후보가 추천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례 상 이어져 오던 신임 회장보다 선임 3개 기수가 맞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과 함께 서동철(23회), 이광섭(24회), 최두주(25회) 동문이 수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동문회장 선임에서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함께 상당히 날 선 반박이 이어지는 등 첨예한 주장이 대립되어 의견 일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역시 동문회 회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여동문회는 지부의 성격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회장단 회의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8년을 여동문회를 맡아 수고해 준 28기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되 대승적으로 후배들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머지않아 여동문이 동문회장이 될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타 토의에서 박영달 경기도약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로 동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회무를 응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폐회 직전에 이광섭 회장대행은 전국 주요 병원 약제부장들로 구성된 흑중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참석한 내빈으로는 고문단의 유정사(10회), 서국진(13회), 장재인(17회), 권석형(23회) 동문, 자문위원단의 김창중(11회), 손의동(22회), 이광섭(24회) 동문, 그리고 감사단의 김수배(21회), 강희윤(22회) 감사를 비롯하여 대약 총회 부의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여동문회에서 김채영(28회) 여동문회장, 이경옥(19회), 곽나운(27회), 양덕숙(28회), 김희식(28회) 고문이 참석했다.

우리 약학대학 황광우 학장과 이종혁(41회) 교수, 신소영 교수가 참석했고, 다소 불편한 상태에도 어김없이 허인회(4회) 명예교수가 참석하셔서 참석한 전체 동문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조 의 환(8회)
동기회장



학창시절 생각하며 젊어진 기분으로

약대 8회 동기회 졸업 60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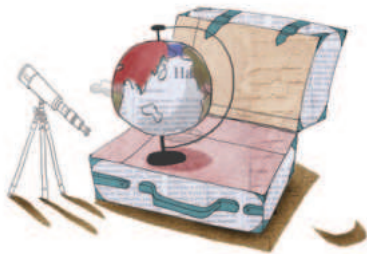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산과 들에는 오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코스모스 하늘
대는 물결 속에서 푸르른 하늘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는 어느 10월
의 멋진 날!

1960년대 전국에서 모인 남녀 수재들이 수십대일의 경쟁 속에서 합격한 우리 동
기생들은 양형호, 한덕룡, 고윤식, 김종갑, 김일혁, 이광표 등등의 명교수 밑에서
그 어려운 약학교육 과정과 실험실습을 통해 약사로서의 긍지를 지니며 사회 각층
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24년 10월, 우리 동기생들의
졸업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약대 8회 동기회의 초대 회장은 김성숙(2015년 1월 14일 소천), 2대 강창호(고문
추대), 3대 박방홍(고문추대), 4대 임상묵(2023년 11월 25일 소천) 그리고 2003
년 5월부터 현재까지 21년동안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이 역임하면서 2014년 10
월 24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이번 졸업 60주년 행사도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기생들은 각양각색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대 약대의 명예를 높여 왔
으며, 아직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국을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고 활동하는 친구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세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때문에 세월앞에 장사 없다
는 말대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 요양병원에 요양중인 친구들, 지팡이 짚는



“ 그 어려운 약학교육과정과 실험실습을 통해
약사로서의 긍지를 지니며 사회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24년 10월,
우리 동기생들의 졸업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

친구들 등등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지요.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동기들이 35명 정도여서 행사를 학교, 총동문회 및 교수초청 등을 생략하고 우리들 모임 수 있는 친구들이 식사하는 자리로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960년대 그때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서 젊어진 기분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 꽃 피워가며 변해진 얼굴 모습에서 진가를 찾은 보물처럼 웃으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뿐인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하여 다음 기회에 만나보기로 기대하면서 아쉬운 시간을 접었습니다.

동기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넥스 이백천 회장님의 기념타월, 동기회장의 녹용흑도라지청진액, 한석원, 박재웅, 최광훈, 조의환 회장의 특별찬조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8회 동기회

8회 동기회 졸업 60주년 기념행사를 뒤로하고....

가슴속에 고운 추억 남기던 날
포도위엔 눈부신 가을햇살 방울들 송이송이 떠다닌다
뜨거운 여름 떠나고 열매 가득 가을이 와 머무른다
곧 아름다운 단풍의 향연이 펼쳐 지리라
세월은 KTX 속도로 달려만 간다, 쌓이는 연륜.... 깊어가는 주름살...
나이엔 졸업이 없다, 마음 비우고 내가 선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 다하리
상념에 잠겨 있는데 잠자리처럼 날아온 편지 한장이 약국 판매대 위에
사뿐히 내려 앉는다
졸업 60주년 8회 동기회 초청장이다
한번 가면 다시 안 오는 시간을 깊이 의식하며 내 삶의 잔고에 즐거운
아름다움과 건강을 채우고 싶음이 꿈틀 작용한다
삶의 언덕에서 벼들이 문득 그리워지면 열대야 속 오아시스 같은 카톡을 연다
벼들의 향기가 바람처럼 불려온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잡을 수 없어도
벼들 만의 개성있는 미소가 꽃으로 피어난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벼들
가슴 가득 차오르는 벼들의 사랑
드디어 새벽을 달려 만남의 광장에 들어섰다
8회 만의 황금무대에 속속히 동기들이 입장
멀리멀리 남쪽 나라에 사는 내가 1등 도착?

조 현 인(8회)



아! 얼마나 기다렸던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서로가 손에 손잡고 환희를 토해낸다
방가, 방개! 가을 국화꽃들이 팡팡 꽃망울 터트리는 듯...

“보고싶었어” 서로 끌어안고 떨어질 줄 모른다
그동안 밀린 이야기 꽃밭을 만든다
생명줄 던져 하늘나라로 먼저 여행간 친구들 소식에 아리도록 그리움에 하늘만 쳐다본다
지팡이에 의지해, 누구가에 손잡고 오는 친구들에게 소리없는 따뜻한 박수...
다리 아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실버카 필요한 80대 아닌가

1960년대 모교의 높이 올라다 보이는 도서관 계단 메뚜기처럼 뛰어 다니며
파이퍼홀까지, 그때가 살짝 지나가네
(지금은 도서관까지 가는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

황금의 뜰에서 외로움 달래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상 최상의 보석은 좋은 친구여라

우리들의 우정은 서로 마주보며 깔깔 웃음을 터트렸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듯 눈시울이 젖어온다
따사로운 우정꽃 사랑꽃 어울려져 회의장 안에 출렁출렁!

건강이 삶의 기본이라 메아리 친다
서로가 고장난 몸을 애처로워 하며 안아주는 눈빛들.....

“오늘이 우리가 살아갈 날의 첫째날 입니다”
가정 젊은 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대 약대 졸업생의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날을 용기있게 예쁘게 살아가세요”
동기회장 조의환 박사 에너지 팡팡 인사말은 회의장 안을 별처럼 계속 떠 흐르고

여동기생들만의 커피 타임 아쉽게 뒤로 두고
경복 한 모퉁이 외딴섬 나의 동지로 아들의 배려 받으며 달리고 달려서...
차창으로 스쳐가는 황홀한 가을 풍경에 원더풀...
건강이 재산이요 행복인 것을
8회 동기생들이여 영원히 건강합시다....

김 종 기(18회)



예쁜 가을 속, 짧은 듯 긴 하루 나들이 이야기

약대 18회 졸업 50주년 기념 한마음 가을 여행기



50년 세월, 말 그대로 반백 년을 보내고 2024년 올해는 중앙대 약대 18회 우리 동기들이 모교를 졸업 한지 어느덧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0년 '70학번'으로 입학한 우리들은, 아직 60년대의 궁핍했던 시절을 다 벗어 나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청운의 꿈을 안고 상아탑의 문을 들어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학 생활을 잘 마쳤기에 졸업 50주년에 가져보는 감회가 여러 가지로 특별하게 느껴진다.

누군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곡절들이 많기에 현실의 일상에 매몰되어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무심하게도 획~하니 흘러가 버리고 어느덧 졸업 50주년.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시절에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나온 지 반백 년이 되고 보니, 젊음은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인생 70개개를 넘어 얼굴엔 이미 주름살이 큰 자리 차지하고 머리카락은 겨울 서리가 내려 앉은 듯 희끗희끗 변해버린 이제 와서 지난 세월을 뒤 돌아보니 아쉽고 안타까움만 마음 속에 가득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되는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는 약사로서 나름의 삶을 그런대로 잘 살았기에 마음 뿌듯해 지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살아온 듯한 우리들을 스스로 위로 하기도 하고, 남은 인생 그동안 값지게 다져온 우리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졸업 50주년 기념 한마음 단합대회 겸 추억여행을 논의하게 된 것은 모교 발전기금 기부 문제도 협의, 확정하기 위해 소집된 지난 9월 어느 날의 동기회 운영 자문위원회 첫모임 자리였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뜸해진 우리 18회 동기회 활동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마침 임기 만료된 회장단이 바뀌게 되었고, 신임 전광우 회장의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리더십으로 새롭게 제안되어 개인별 자유의사로 참여하게 된 동기회 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많은 토론을 거쳐 모교 발전기금 기부 건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9일 대표단을 꾸려 모교를 방문하여 기금전달식을 잘 마치고, 추억 여행에 대해서도 세부사항들을 협의 및 준비하여 드디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길에 오른 것은 지난 11월 3일, 날씨도 아주 화창한 일요일 이었다.

동기회 회장 및 자문위에서 결정, 마련한 여행 일정 계획에 의거 아침 9시 50분에 모인 곳은 경춘선 전철이 출발하는 상봉역 플랫폼. 10시 18분 상봉역 출발을 앞두고, 마침 일요일이기에 여행객들이 무척 많아 경춘선 전철이 매우 복잡하여 미리 차량 안의 빈자리를 잡는다고 일부 먼저 온 친구들이 탑승한 것이 우리 일행을 잠시나마 갈라놓게 된 해프닝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일부 친구들이 미리 탑승해 있던 선행 전철은 몇명의 친구들이 아직 상봉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대로 출발을 해 버려서 나중에 도착한 그들은 줄지에 본진과 잠시 헤어지게 되었다. 둘로 나뉘어 출발하게 된 후진이 우연히도 남녀 각각 2인이었기에 일행은 농담 삼아 자기들끼리만 남이섬이나 자라섬으로 별도 커플 여행을 갈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럴 순 없었기에, 어쨌든 원래 계획상의 출발 시간인 10시 18분에 목적지 김유정역을 향해서 후진도 출발했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유난히 어려웠던 우리들의 70년대 초반 대학시절, 가끔은 살벌한 시험과 뻑뻑하기만 했던 학점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벗어나서 통기타 둘러 메고 친구들과 어울려 찾았던, 그러하기에 더 감회가 깊은 대성리, 가평, 강촌을 지나 전철은 옛추억에 한껏 젖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도 달려간다. 형형색색 물들어진 단풍들이 가을을 더욱 예쁘게 장식하고 있는 차창밖 풍경도 감상하며 오랫동안 만난 친구들과 톨 톨이 수다를 떨다 보니 전철은 어느새 18개(우리 동기회 기수와 같은……) 정거장을 지나 김유정역에 도착했다. 마침 흥천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이곳으로 바로 와서 우리들과 합류 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삼삼오오 자유롭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걸어서 이번 여행의 첫 경유지 김유정문학촌으로 향하였다.



점순이를 아내로 맞기 위한 일념 만으로 3년이 넘는 세월을 새경도 없이 머슴살이 하였지만 오히려 예비 장인의 거짓말과 점순이의 변심으로 혼례도 못 치루고 배반 당한 주인공의 딱한 처지를 그린 단편소설 ‘봄.봄’을 쓴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가 김유정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춘천시 신동면에 설립된 문학촌에는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작가의 생가, 문학전시관, 작품에 나오는 지명을 둘러보는 문학산책로, 외양간, 디딜 방앗간, 연못 등이 잘 조성 되어 있었다.

춘천은 역시 닭갈비의 고장. 문학촌을 둘러 보며 문학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때는 벌써 정오를 넘어 점심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 문학촌 근처의 유명 닭갈비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소문난 맛집인 듯 여행객들이 무척이나 붐비었지만 우리 일행은 미리 예약을 하였기에 기다림 없이 쉽게 좋은 자리를 잡아 앉았다. 많이 맵지도 않고 부드럽게 양념, 숙성된 닭고기와 각종 야채들이 적당히 버무려져 철판 위에서 잘 익혀진 닭갈비 요리는 출출한 우리들 입맛을 완전히 사로 잡았고, 강원도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감자전에 소주와 막걸리로 반주를 곁들이니 금상첨화. 여기에 매콤, 새콤, 달콤한 막국수까지 추가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만족스런 점심을 즐길 수 있었다.

강원도 춘천의 대표 음식으로 점심을 마치고 우리가 향 한 곳은 춘천의 명산 중의 하나인 삼악산.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위치해 있는 삼악산은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655m이고 주봉은 용화봉인데, 산의 규모가 그리 크거나 웅장하지는 않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소로서 산 가운데는 유명한 등선평포가 있기도 하다. 우리 일행은 일단 삼악산에 올라 가을이 한창 내려 앉은 수려한 산세 풍경과 북한강 의암호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춘천시 전경을 감상 하기로 하고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의암호 정차장으로 향했다.

점심 장소에서 약 15분정도 택시로 이동하여 도착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의암호 정차장은 2021년도에 개장, 북한강 의암호 봉어섬을 가로질러 국내 최장 약 3.6키로 거리를 공

“

어느덧 졸업 50주년.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시절에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나온 지 반백 년이 되고 보니, 젊음은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인생 70고개를 넘어 얼굴엔
이미 주름살이 큰 자리 차지하고 머리카락은 겨울 서리가 내려 앉은 듯 희끗희끗 변해버린
이제 와서 지난 세월을 뒤 돌아보니 아쉽고 안타까움만 마음 속에 가득한데. ”

중에서 최상의 뷰를 즐기며 삼악산 전망대에 도착하게 된다. 케이블카를 내리면 통유리창의 전망
은 카페가 있어 아름다운 북한강 전경과 의암호, 춘천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전망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사이 일부 친구들은 카페 밖에 조성된 산책
로를 따라 약 10분정도 걸어 올라 정상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주변 경관 및 멀리 춘천 시
내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즐거운 시간은 왜 그리 빨리도 지나는지. 어느덧 짧은 늦가을 하루 해는 서쪽 산등성이에서 모처럼
의 가을 나들이를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쉬움 속에 하강하는 케이블카는 우리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의 자유낙하 하는 느낌으로 하
강. 투명한 케이블카 바닥으로 내려다 보이는 북한강 강물조차 오르던 때와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듯
보이는 건 짧게만 느껴지는 가을속 하루 나들이에 아쉬운 우리들 마음을 은연중 말해 주는 것 이리
라. 케이블카 정차장 아래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택시를 나누어 타고 남춘천역
으로 향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 남춘천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전철에 승차 후 나란히 좌석에 앉아 다시
서울로 향하는 우리들. 오늘 하루의 일들을 재음미 하느라 수다 아닌 수다를 꽃피우다 보니 어느새
전철은 어둠 속을 내달려 아침 출발지 상봉역에 도착. 그냥 헤어지기에는 너무 서운하고 또 저녁 시
간도 되고 해서 저녁식사 후 이번 여행 일정을 마치기로 하였다.

깊어가는 가을의 짧은 해이기에 이미 땅거미는 지고 어두워진 시간에 유난히 환하게 불 밝힌 상봉역
을 벗어나 근처 한식집에 자리를 잡고 맛난 돼지불고기에 가벼운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즐겼다.
저녁상 자리에서는 자기의 잔여수명과 사후 처리에 대해 얘기한 한 친구의 개인 철학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은 일단 유보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얘기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아닌 마무리.
그런 토론 또한 아마도 오랜만에 가져본 오늘 하루의 짧은 일정이 마냥 아쉬워 나온 푸념이 아닐지.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이번 가을 하루 나들이를 마무리 하며 멀지 않은 날에 또 다시 만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여행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의 발언들이 많았다. 여러
친구들의 그런 뜻을 잘 수렴하여 앞으로 또 다른 예쁜 추억 만들기 여행을 고려하기로 하고, 이번 졸
업 50주년 기념 한마음 단합대회 겸 가을 나들이를 마치면서 우리 일행 모두가 다시금 마음에 되새
겨 본다.

역시 모교 교훈 ‘의에 죽고 참에 살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되, 의도 좋지만 너무 금방 죽지는 말고
우리 친구들 모두 무엇보다도 건강히, 참되게 그리고 오래오래 즐겁게 살아가자는 다짐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영원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18회 동기 친구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18
동기회 파이팅!!!



신짜오 비엠티

— 안개의 도시 사파 3,143m 판시판산 등정

자존심 강한 나라 비엠티(베트남)

먼저 짚고 넘어가자. 세상에서 Viet Nam(越南)을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딱 2개국만 있다. 일본과 한국이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를 일본에서는 마꾸도나르도(マクドナルド)라고 표기한다. 그러니 Viet Nam은 베토나무(ベトナム)로 읽을 것이고,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 베트남이 되었다.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관용을 존중하여 베트남을 표준어로 채택했다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비엠티가 맞다. 요즘 알려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 비엠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54개 종족이 모여 이루어진 국가인데, 비엠티족이 70~80%를 차지하고(비엠티족이 사는 나라 비엠티), 나머지가 소수민족들이다. 남북한 합친 면적의 약 1.5배 되는 땅에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는 대국인데다 24세 미만이 인구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나라다. 초고령화에 진입한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가능성이 창창한 나라다.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월남전에서 미국을 이겼고, 이후 크메르 루지의 캄보디아와 남쪽 전선에서, 중국의 정규군과 북쪽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을 패퇴시켰다.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난다.

기록적인 폭염을 피할 겸 아직 한국인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성에 있



박희용 (23회)
편집위원

는 사파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 하노이에서 다시 북쪽으로 버스로 꼬박 6시간을 더 가야 한다. 예능 프로에 소개되었으니 다낭처럼 조만간 한국인들로 넘쳐나 경기도 사파시가 되기 전에 얼른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날씨는 일기예보보다 운에 맡기자

사파(Sa Pa)로 간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스위스라 불리는 곳이다. 대부분의 날에 안개가 끼어 있어 안개도시로도 불린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이 또한 우기다. 워낙 고지대라 밑에서 보면 구름층이 하나도 아니고 2개 층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표현이 이채로웠다.

사파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판시판산은 3,000m 이상의 고봉이어서 약간의 고산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대를 적선했어야 날이 맑아 산 위에서 아랫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구름에 가렸다가 안개가 사라졌다가 종잡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 우기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변화무쌍한 날씨는 누구의 예측도 비웃는다. 우리가 이동하는 오늘의 일기예보는 비 올 확률 80%라고 했으나 막상 와보니 하늘이 파랗기만 하다. '내일 판시판산 올라갈 때도 이렇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그건 내일 가봐야 하는 일이다.

호몽족의 도시 사파

베트남 북부 산간지대에는 몽족이나 자오족 같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데, 사파가 속한 라오까이성을 대표하는 원주민이 몽족이다. 몽족은 호몽족이라고도 하며, 이 지역에서는 검은색 옷을 주로 입기 때문에 블랙 호몽족이라고 불린다.

열악한 도로나 교통사정 등으로 사파는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었으나 뛰어난 자연경관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더운 날씨를 피해 프랑스인들이 남쪽의 달랏, 그리고 북쪽의 사파를 휴양지로 개발했다. 웬만한 곳을 다 섭렵한 한국인들이 몰려올 것은 시간문제다.

유리잔도와 절벽 엘리베이터

첫 방문지로 사파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롱머이라는 유리다리(glass bridge)를 보러 간다. 멀지는 않으나 워낙 고지대라 경사로를 따라 꼬부랑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차로 시간이 제법 걸린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호텔가의 공터에 있는 공동 주차장에 버스를 대고 골프카트 같은 소형차로 갈아타고 다녀야 한다.

이 지역의 명물이라면 단연 계단식 논이다. 고지대라 평평한 땅이 없어 산을 깎아 층층이 다랭이논을 만들었다. 비가 수시로 내리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다. 산 중턱을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는 데 중간중간에 구름이 걸려있다. 평지에서 좀체 경험하기 힘든 광경이다.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수직으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300m를 오르면 해발고도 2,333m의 유리다리 롱머이(Rong May)가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요즘 한두 번은 경험해 본 그런 투명유리로 된 잔도는 밑으로 보이는 광경이 아찔할 수밖에 없다. 걱정을 온몸으로 이기며 막상 올라서 보니

워낙 폭을 넓게 만들어 놓았다. 나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도 겁내지 않고 별 무리 없이 구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건 잘한 일이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호양리엔션 산맥의 풍경이 장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논스톱 케이블카’ 타고 판시판산으로

다음날 느긋하게 일어나 소식을 좀 더 여유있게 즐기고 최고 고도 3,143m의 판시판산으로 간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차이나의 자봉으로 불리는 산이다. 당연히 이번 여행의 꽃이다.

보통은 선월드 프라자(사파 스테이션)에 입장, 푸니쿨라를 타고 세계 최장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판시판 케이블카 다운힐 스테이션으로 가는데, 우리는 전세버스로 거침없이 바로 갔다.

베트남 3대 기업 중 하나라는 선월드 그룹이 자랑하는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를 타고 산중턱까지 간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논스톱 케이블카’라는 타이틀로 총연장 6,292.5m, 케이블카 출발지와 도착지의 최대 고도차는 1,410m라니 생각보다 엄청나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인정한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끝이 아니라 다시 트램을 타고 급경사를 올라가야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

출발하면서 가이드의 조언에 따라 한 명이라도 더 트레킹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3~40분쯤 걸린다는 정상까지 걸어가려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올랐던 여느 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해발고도 3,000m가 넘는 고봉을 조금이라도 걸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런데 거칠거칠한 어제는 비 예보와는 달리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도 그러려니 했건만. 기대와는 달리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정상에 가까워지자 제법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예비조사에서 그래도 가볍게 걸어보자는 분들이 서너 분 있었으나 막상 악천후의 분위기 앞에 선뜻 손드는 사람이 없다. 꼭 걸어서 가고 싶다면 혼자라도 가이드를 따로 붙여준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정을 뻔히 아는 데 현지인 가이드가 나를 따라 나서는 우리 그룹의 후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될 일, 선선히 같이 트램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최대 35명까지 탈 수 있다는데, 다행히 우리는 10명 정도로 팀을 나눠 여유롭게 탈 수 있었다. 출발하자마자 마음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며 사진 찍고 하고 싶은 대로 하란다. 순간적으로 까마득한 아래쪽 다랭이논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정말이지 한참을 올라간다. 세계 최장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김우중과 박항서, 한국인 위상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 가이드가 오늘날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진 덕을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꺼낸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여기에도 예외가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두 명의 한국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창기에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공이 컸다. 우리에게 이미 잊혀진 이름이지만 여기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대우 브랜드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외교관계가 척박했던 시절의 일이니 마땅히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박항서 감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덩달아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급상승했다. 현지 교민들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가이드에게 며칠 전 한국에서 바로 그 박감독의 초대로 저녁을 제대로 대접받았다는 사연을 밝혔더니 본인 일처럼 기뻐한다.

마지막 트램 구간은 몇 분 걸리지 않아 급경사길을 박차고 올라간다. 고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도 약간의 고산병 증세를 호소한다. 그래서 원래 날씨가 좋으면 트램을 타지 않고 고소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이 권장된다고 한다.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자 고산병 증세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평지와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왔다. 가이드가 주의한 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면 크게 불편은 없었으나 말을 하거나 조금 빨리 걸을라치면 숨이 가빴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괜찮아 어찌고 하며 무리하게 움직였다간 바로 후회한다.

해발고도 3,143m 판시판산 증명사진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부근에는 사람들이 저자거리처럼 북적이고 있었다. 순간 한라산 정상 표지석 앞에서 사진 찍기 위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던 인파가 생각났다. 여기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상임을 표시하는 정상석이 세 군데나 있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사진만큼은 편하게 찍으라는 배려로 해석하기로 했다. 어쨌든 3,143m 표지석 앞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증명사진을 찍어야 했다.

지리산 천왕봉을 열 번 이상 찍었다고 은근히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겨울 엄동설한에 바람마저 무지막지하게 불어 정상에서 사진이고 나발이고 빨리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다. 고도가 1,915m라 호흡이 가쁘거나 하는 기억은 전혀 없었으나, 거기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인식은 정확히 가지고 내려왔던 악천후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여기는 해발 3,143m, 비록 숨은 좀 가쁘지만 배에 힘주고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2.5대 정도의 덕을 쌓은 것으로 치부

어쨌든 일행 대부분은 다시 트램을 타고 내려가고, 그래도 의기투합한 몇몇이 그 구간만큼은 걸어 내려가기로 했다. 실제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으나 워낙 고지대라 급경사의 계단임에도 산을 빙 둘러 내려가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소위 고산병 증세로 인해 빨리 걷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 비까지 끊임없이 내리니 더군다나 서두를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중간중간 바람이 불어 구름이 잠깐 흩어지는 사이로 오매불망 고대하던 아래쪽 풍경이 아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광경은 가히 일품이었다. 3대까지는 아니라도 2.5대 정도의 덕을 쌓은 것으로 치부하며 일행과 기쁨을 나눴다.

Cat Cat, 깃갯마을

대망의 판시판산 등정을 마치고 소수민족인 호몽족이 모여 살고 있는 깃갯마을로 향한다. 프랑스인들이 볼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꼭 고양이처럼 보여 cat cat이라고 불렀는데, 현지 발음으로 cat이 깃으로 발음되니 깃갯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매표소 입구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깃갯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알게 된다. 내려가는 길에 뭔가 눈에 띄는 구조물이 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본떠 만들었다는 약간 인공적인 구조물이 나타난다. 돈 내고 들어가 사진 찍으라는 것인데, 속아 넘어주기에는 조악함이 너무 눈에 띈다.

가이드의 말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겨운 마을의 정취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고유한 풍습의 마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흔적만 곳곳에 생채기처럼 남아있다. 이전에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고 간혹가다 기념품점이 있었는데, 돈 냄새를 맡은 탓인지 지금은 마을 전체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가게로 바뀌었다. 집집마다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그만그만한 수공예품 아니면 음식점이니 차별화도 안 되고 장사도 잘 안된단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통 옷을 빌려주는 곳이 많다. 우리네 한복대여점처럼 호몽족 고유의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다. 소수민족 고유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는 대신 그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폭포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예쁘게 치장된 다리도 있고 해서 사진 찍는 데는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는 호몽족 노인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베틀을 돌리거나 전통 자수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도회의 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뭔가 확 끌리는 것이 없다. 잘 팔리지도 않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모습이 찝하다. 이곳의 평균 고도가 1,500~1,600m라 농사를 짓기도 어렵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진다.

좀 답답한 마을 분위기와는 달리 날이 진짜 화창했다. 이렇게 날씨 좋은 경우는 흔치 않으니 우리가 운이 좋은 팀이다. 더군다나 비가 온다고 예보된 시점이 아닌가. 화창한 날씨를 제대로 즐기는 건 곳곳에 상팔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공들 뿐이다. 고양이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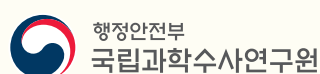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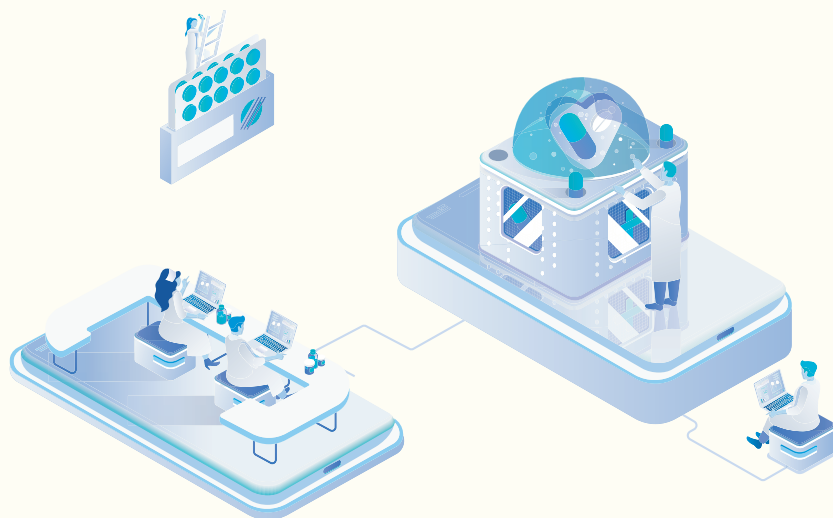


사향족제비 똥에서 채취한 위즐 커피

이번 여행의 유일한 쇼핑 옵션이 다행히 커피점이었다. 베트남이 커피 대국이라는 말은 익히 들었던 터, 뭘 사는 걸 즐기지 않지만 커피라면 선물로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커피 가게로 간다.

설명을 들어보니 세계 3대 동물 똥 커피가 있다. 사향고양이에서 채취한 인도네시아의 루왁, 사향족제비에서 채취한 베트남의 위즐, 그리고 코끼리에서 채취한 태국의 블랙 아이보리가 그것이다. 눈앞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린 커피를 시음하며 맛을 비교해 보도록 했다. 문외한인 내게도 맛의 차이가 느껴졌다. 흔히 볼 수 없는 두리안 커피를 살짝 맛보았는데, 질색할 정도의 과일과는 달리 먹을만했다. 코코넛커피도 있다.

유럽인들은 주로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양치질 안 해도 입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다. 2차 대전시 유럽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에스프레소가 너무 써서 물을 타서 마셨다. 이태리 사람들이 경악해서는 저 미개한 미국인들이 먹는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익숙하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 국과수 독성학/마약 분야 전문가인 약사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 약학과 04학번 김소현입니다. 저는 지금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을 모토로 대한민국 과학수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National Forensic Service, 이하 국과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문회지에 이렇게 글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중앙대학교 약대 동문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고 공직약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중 저보다 먼저 국과수에서 일하고 계셨던 동문의 소개로 국과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과수에 지원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는 공직약사인 만큼 직접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과 대학원 과정에 이어 제 적성에 잘 맞는 실험과 연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소 현(52회)



전문가로서 약사, 독성학 및 마약 업무에 종사

국과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과학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사들이 속해서 일하는 분야는 독성학 및 마약 업무입니다.

독성학 업무에서는 변사, 약물중독 사건의 사인 규명과 관련하여 각종 생체시료와 현장 증거물에서 의약품, 독극물 등의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업무에서는 규제물질 감정과 관련하여 각종 생체시료와 현장 증거물에서 마약류 및 환각성 유해화학물질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이유는 약사는 약물이나 독극물, 마약 등 약리작용을 가지는 많은 동식물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이며, 이러한 물질들이 인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독성학 업무 - 변사 사건 및 각종 약물 범죄 사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독성학 업무에서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사자가 약물이나 독극물 등을 과량으로 음독하고 사망한 것은 아닌지 변사자의 혈액이나 위내용물 등에서 약물이나 독극물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고 독성여부를 판단합니다. 약물이나 독극물의 종류는 그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분석장비들을 활용하여 그 물질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또한 변사 사건 외에도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들,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의약품 감정, 병역면탈을 위한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 약물 운전, 약물성 범죄 등과 같은 약물 범죄를 밝혀내는 분야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업무 - 마약류 검출, 신종 마약 구조 분석

마약 업무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들의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 검출을 하고, 현장품으로 들어온 마약 자체나 주사기,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같은 마약 투약 도구 등에서 마약류 검출을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신종 마약류의 급격한 유입과 남용으로 인하여 신종 마약류의 구조를 밝히는 분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오남용 문제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인 만큼 약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음을 느낍니다.

약사로서 생소하지만 진출해야 할 분야

국과수에서 약사로서 일한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약사라는 전문가그룹이 과학수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도 우리 동문들이 더욱 활발히 진출하여 활동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균 의약품 제조 공정 중 오염관리

Contamination Control



이 글의 목적

무균 의약품 제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생물 오염에 대한 방지이며, 이를 실제 생활 혹은 약국을 운영하며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약국은 대부분의 고객이 환자이고, 특히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약사분도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국 자체가 오히려 전염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특성

다른 오염은 시각적, 후각적, 촉각 등으로 바로 알기 쉬우나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었음을 바로 어려운 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제약회사에서도 미생물의 오염을 바로 알 수 없고 균이 잘 자라는 배지에 배양한 후 며칠 뒤에야 결과가 나오는 무균실험을 통하여 미생물에 오염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특징은 스스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고 비말이나 먼지 같은 파티클에 부착하여 이동하며, 그 외에는 오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오염된 신발로 밟고 다니는 행위 등 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COVID-19 팬데믹을 통하여 비말, 손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장갑 착용하는 것 등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 예방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worst point와 파티클을 잡으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미생물 감염을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공장은 HEPA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rresting filter, 공기 중 미생물을 여과해 줄 수 있는)를 통한 공조와 주기적 소독, 갱의 및 환경검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됩니다만 사실 일상 생활이나 약국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 동 환(45회)





인체

사람은 신체에서 머리카락, 각질 등 계속 오염원을 배출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러니 하게 무균 공정의 주체이자 가장 큰 적입니다. 무균공정 현장에서 사람만큼 더러운 오염원(!)은 없고 약국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람 몸에서도 미생물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을 뽑자면 손, 입, (신)발바닥이 가장 worst point입니다.

인체로부터의 오염원의 전파는 복장으로 '차단'하거나, 청소로 '제거', 혹은 소독으로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장과 휴대품

머리카락은 하루에 몇 십 개씩 빠지기는 하나 발견하기 쉽고, 미생물 오염 차단 제품에서 발견된다면 외관상 소비자나 환자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인지하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약국 조제실에서도 식당 주방처럼 기본적인 위생복장(가운, 헤어 캡,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입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동네 약국을 보면 식당 주방보다 덜 위생적으로 입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약품 제조 현장 복장 재질은 대부분 100%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고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면이나 울은 찾기 어렵습니다. 폴리에스테르의 장점은 면이나 울과 다르게 튼튼하고, 먼지나 섬유 배출을 거의 하지 않으며, 저렴하고, 세탁도 용이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면보다 액체 흡수를 잘 안하고, 정전기 발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전기를 차단하는 원사도 같이 포함된 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계 제약공정 공통 가이드인 PIC/S의 무균공정 부분을 보면 무균공정 지역에는 4가지를 꼭 집어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손목시계, 핸드폰, 화장이며 모두 공통적으로 신체와 밀접하여 접촉하고 있으며, 청소 및 소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약을 다루시는 약사님들도 이런 부분은 항상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핸드폰과 태블릿PC의 경우 별도의 문장으로 기술하여 아예 청정지역 전용으로 두라고 할 만큼 규제기관은 심각한 오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비비고, 침 튀기고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취급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자주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

청소와 소독은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약공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는 '물리적'으로 이물질 혹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2차 목표는 표면의 장애물을 없어서 소독액에 잘 노출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독은 '화학적'으로 미생물을 죽이는 절차입니다. 즉, 양치질이 청소라면, 가글은 소독입니다.

가글 먼저 하고 양치하면 효과가 없듯이 순서도 항상 청소 이후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액만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물티슈 같이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방법은 훨씬 소독의 효과를 높여 줍니다.

청소, 소독의 방향은 항상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쪽으로 실시하여 오염원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독액

모든 소독액이 모든 종의 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에탄올은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잔유물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곰팡이나 스포어(포자)를 형성하는 균을 전혀 죽이지 못합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는 에탄올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IPA(Isopropyl alcohol) 4가암모늄, 페놀, 락스, 과산화수소, 초산 등의 좀 더 많은 균을 죽일 수 있는 성분도 많이 사용합니다.

소독약 타입	대표적 성분 물질	효과
Sporicide	· 초산 + 과산화수소 혼합물 · 과산화수소 6% · 락스 계열 (Hypochloride)	 강함 (다양한 미생물 종에 효과)
Disinfectant	· 과산화수소 3% · 4가 암모늄 혼합물 (Quaternary ammonium) · 페놀 계열	
Sanitizer	· 70% 에탄올 · 70% IPA (Isopropyl alcohol)	

과산화수소는 특히 VHP(vaporized hydrogen peroxide) 혹은 훈증이라고 해서 기체상태로 만들어서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의 균도 죽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약국판매용은 보통 농도가 3% 이하이고 무균공정용으로는 농도 6%를 사용하고 훈증용은 더 고농도를 사용합니다.

소독액은 일단 용기를 열게 되면 제약회사에서는 당일 모두 즉시 사용하고 흔히 말하는 킵해 두지 않습니다. 용기를 여는 순간 균이 유입될 수 있고, 성분이 휘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검증한 결과가 있지 않는 한은 모두 당일에 모두 소진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과 먼지는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결국은 중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이나 물건의 윗부분에 가장 많이 안착합니다. 제약공장은 신발을 보통 갈아 신거나 덧신을 신어서 외부오염을 방지합니다만 약국의 경우 신발을 갈아 신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바닥은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주면 좋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파티클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류가 생기면서 다시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미생물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약회사처럼 손소독을 하고 들어오고 장갑을 낀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 위주로 (예: 문 손잡이, 카운터 위) 자주 소독하면 좋습니다. 또한 약국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약사님과 환자와 직접 접촉을 많이 하는 부분이 현금과 카드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마트나 다른 상점처럼 비접촉으로 결제하는 방법(예: 손님이 직접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을 추천합니다.

조중래 늘겔애라이프온(주) 대표, 발전기금 1억 쾌척



2024년 9월 11일 ‘늘겔애라이프온(주) 조중래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이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인 조 대표를 비롯한 늘겔애라이프온(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상규 총장과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민혜영 약학과 학과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 우리 대학 관계자들이 조 대표를 맞이했다.

반가운 손님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조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현 약학대학 동문회장인 정상수 (주)파마리서지 회장과 동문회 수석부회장인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의장, 이광섭 한국유니온제약(주) 부회장, 이규삼 서울 은행약국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

약학대학 76학번 동문인 조 대표는 이날 모교인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우리 대학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에 동참해 소중한 발전기금을

전달한 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늘겔애라이프온(주)은 1982년 부산상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1호 상조회사다.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나라 상조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며, 상조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관혼상제 관련 생활 편의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선보이며, 총 상조 자산 규모가 1,200억원이 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조 대표는 평소에도 다양한 기부·봉사 활동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 왔다. 부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문학 소통 공간 ‘고운서당’ 장학금 기부,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봉사, 백내장 수술 지원, 임직원과 함께 하는 소외계층 기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섰다.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 기부 발판 약학대학 3층 ‘조의환 라운지’ 조성, 현판식 개최



약학대학 70학번 동문으로 현 삼진제약 회장인 조의환 동문의 기부에 힘입어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에 새롭게 마련된 ‘조의환 라운지’ 현판식이 9월 23일 개최됐다.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을 비롯해 성맹제 연구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등 우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조의환 라운지는 올해 1월 우리 대학에 5,000만원을 기부한 데 더해 9월에도 5,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한 조 동문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102관 3층 로비를 전면 보수하고, 학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가구를 설치한 끝에 조의환 라운지가 모습을 드러내

게 됐다.

약대 학생들은 새로운 공간이 조성된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재성 약대 학생회장은 “3층 빈 공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라운지가 생겨 정말 기쁘다. 회장님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며 발전할 조 동문은 “이 라운지가 약학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 삼진제약은 중앙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규 총장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대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조의환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라운지가 약학대학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학대학, '손의동 홀' 현판 기증식 개최... 손의동 명예교수의 모교 사랑 기려



약학대학이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09호에 조성한 '손의동 홀'의 현판 기증식을 11월16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약학대학 손의동 명예교수가 그간 꾸준히 선보여 온 모교에 대한 사랑을 기리고자 마련된 것이다.

약학대학 74학번으로 미국 브라운의대 조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약학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한 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약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약학대학 학장, 대한약리학회장, 대한약학회장을 맡으며 약학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손 명예교수는 재직 중은 물론 명예교수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모교를 위한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직년에는

1억원의 발전기금을 우리 대학에 기부했고, 최근에는 대학원 동문회장을 맡아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는 중이다.

이찬규 행정부총장과 황광우 학장은 한목소리로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약학대학 발전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손 명예교수에게 감사를 전했다.

손 명예교수는 “약학대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대학교 및 약학대학 발전에 우리 모두 노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약학대학 발전기금 현황

2024년 9월 ~ 2024년 12월

기수	성명	기부금액	기수	성명	기부금액	기수	성명	기부금액
24회	정상수	500,000,000	23회	이승하	1,000,000	32회	손수정	3,000,000
1회	홍홍만	1,000,000		홍순옥	10,000,000		이경우	1,000,000
7회	이기환	5,000,000	24회	함삼균	2,000,000		김익수	5,000,000
8회	조의환	100,000,000		이광섭	2,000,000		임형미	3,000,000
	이백천	5,000,000		임무호	10,000,000		윤형중	1,000,000
	허근희	1,000,000		이규삼	2,000,000	33회	강기석	10,000,000
10회	류정사	3,000,000		최영옥	5,000,000		권오규	1,000,000
	10회 동기회	5,000,000		윤규형	1,000,000		김정태	10,000,000
	정영기	1,000,000		최종정	10,000,000	34회	김숙경	1,000,000
11회	김창중	1,000,000		변영건	5,000,000		한일권	1,000,000
	장순걸	6,000,000		함한성	1,000,000	35회	35회동기회	20,000,000
	하정선	1,000,000		정종근	1,000,000	36회	임성호	3,000,000
12회	황순오	60,000,000		조종래	100,000,000		김진수	1,000,000
13회	최호순	5,000,000		장규옥	1,000,000		차인혜	1,000,000
	서국진	1,000,000		이영주	2,000,000	37회	서보연	1,000,000
14회	김동원	1,000,000		김승재	1,000,000	38회	진정주	150,000,000
15회	정해성	2,000,000		윤세형	1,000,000	39회	한은경	5,000,000
16회	안태환	1,000,000		양성삼	1,000,000		박종혁	100,000,000
	하상권	1,000,000	25회	최두주	1,000,000	40회	이병두	1,000,000
	우상규	1,000,000		김광호	3,000,000	41회	이은영	10,000,000
	최광식	1,000,000	26회	최태형	10,000,000		이은경	1,000,000
	송수영	1,000,000	27회	염승호	3,000,000	46회	이동훈	1,000,000
	백승복	1,000,000		이연숙	10,000,000	58회	김태수	1,000,000
	권희문	1,000,000		박영달	5,000,000		김은혜	1,000,000
	김용환	1,000,000	28회	고재호	3,000,000	61회	박은혜	1,000,000
	정동래	1,000,000		김희식	1,000,000	62회	김준하	1,000,000
	허사길	1,000,000		김미경	1,000,000		김의석	2,000,000
	김광길	1,000,000		김채영	1,000,000			
	이은솔	1,000,000		양덕숙	3,000,000		성명	기부금액
	이정순	1,000,000	29회	29회 동기회	1,000,000	학장	황광우	5,000,000
17회	장재인	2,000,000		김영자	5,000,000	교수	김훈영	1,000,000
18회	박계환	5,000,000	30회	최병태	1,000,000	교수	김하형	1,000,000
19회	이경옥	1,000,000		최병원	2,000,000	교수	나동희	10,000,000
20회	김현태	1,000,000	31회	이정희	1,000,000	교수	민경훈	1,000,000
21회	신길득	2,000,000		구상미	1,000,000	교수	민혜영	1,000,000
	김수배	2,000,000		강미숙	3,000,000	교수	오경택	1,000,000
	김중효	2,000,000		오대근	1,000,000	교수	오미현	2,000,000
	한상윤	2,000,000	32회	32회 동기회	3,000,000	교수	유희찬	5,000,000
	한성희	2,000,000		김신규	1,000,000	교수	이순우	10,000,000
	한찬수	2,000,000		김지현	1,000,000	교수	이성훈	1,000,000
22회	최광훈	5,000,000		전경숙	1,000,000	교수	정경혜	2,000,000
	강희윤	1,000,000		이경준	3,000,000	교수	조재범	5,000,000
23회	박희용	1,000,000		유완진	1,000,000	교수	황완균	1,000,000
						합 계	1,343,000,000	

2024회계년도 회비내역 2024년 9월 ~ 2024년 12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4회	정상수, 김승재, 김태두, 박길태, 변영건, 양성삼, 윤원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이희상, 임무호, 장규옥, 정종근 조중래, 최영욱, 최종정,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32회 김신규, 김익수, 임형미, 정선종, 함인혜
25회	김광호, 이현수, 최두주	34회 신수민, 이선민
26회	박정래, 한갑현, 최민규	33회 강기석
27회	곽나운	35회 김 진, 이경선
28회	구영삼, 김채영,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36회 우경아, 임성호
29회	김인혜, 이종욱	38회 김병욱, 진정주
30회	김광식, 백영주, 최병원	40회 이병두
		41회 김소연, 김정민
		45회 고기현

이사회비		150,000원
5회	김채윤, 조동준	24회 심영철, 윤세형, 이동훈, 이형수
6회	박정배, 안인혁, 유관열, 임완호	25회 고성권, 김완기, 김희섭
7회	정재일	26회 김정수A, 김정수B, 선우일원, 손영상, 최종배
8회	박번일, 이백천, 정재영, 조의환, 최영자, 허근희, 한석원	27회 박수길, 오순용, 오홍설, 최종식, 현기원
9회	김영빈, 이근배	28회 고재호, 김유곤, 신영무, 이병천, 전금용, 최용철
10회	김명민, 심수일, 유정사, 정영기	29회 손병로, 유종운, 한일룡
11회	고승하,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이철규, 황공용	30회 김성배(김해승), 김혜수, 최병태
12회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염윤기, 이관하, 조택상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노
13회	구연홍,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윤해선, 이상길, 최창엽	32회 손수정,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윤국, 김종열, 양인승, 조병하	33회 김영재, 이정수
15회	조찬휘	34회 김보원, 한일권
16회	백승복, 송용만, 이은술, 최광식, 최창원	35회 송지숙, 양윤정, 오창현, 임중식
17회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전상훈	37회 안의성
18회	강응모, 김기명, 조중형	38회 김인성, 최은영
19회	김경오, 박효식, 임종철, 윤건섭, 이경옥, 장호성	39회 민필기, 박성훈, 방근철, 한은경
20회	권오규, 김영식, 김현태, 류화승, 문주기, 박기배, 배성진 이극선, 이영희, 이호선, 정찬현, 최석중	44회 이선영, 정원석
21회	김수배, 김중효, 양주석, 한상윤, 한성희, 한찬수	45회 조은구
22회	강희윤, 김인선, 김홍진,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현희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55회 김성태
23회	강한구, 권석형,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서동철 이계석, 이승하, 임준석, 최의한, 하충렬, 홍순욱	57회 김 윤, 서해준
		58회 김은혜, 김태수, 김희주
		61회 정영섭
		62회 박영호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손광자(9회), 심재창(12회), 박광자(12회), 이수결(13회), 김태성(17회), 김관식(25회) 김기형(26회), 이경준(32회), 박경록(33회), 진정주(38회), 구영준(41회), 이지윤(46회), 김태영(55회), 박창국(66회)	

일반회비		30,000원
5회	이수웅	29회 권혁자, 김인범, 이강현, 이연주, 장귀연, 장우성
6회	신의명, 정진석	30회 강성희, 고은숙, 김상의, 김선겸, 김현학, 문미례, 박복자
8회	김진우, 김형이, 박희철, 배영애, 백만섭, 안덕기, 유재우 이능자, 임진택, 정달수, 정재영, 정재용, 정형숙, 장승자 조수현, 조현인, 허정자	박병미, 배영숙, 손은실, 이경숙, 최현희, 홍염미
9회	권태섭, 김광자, 노신희, 이병호, 이해자, 이호식, 정상모 조병일, 채대수, 최보혜, 최인자, 한정희	31회 강미숙, 구상미, 김미경, 김향수, 류문숙, 문희석, 박영란
10회	김정남, 박광일, 이원일, 전광석	오대근, 유두종, 유지영, 이동익, 이선자, 임기상, 최윤실
11회	구자역, 김재곤,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서정일 송상부, 안홍신, 양계창, 이명옥, 이종만, 장현소, 전창환 허정범	32회 국승곤, 김현정, 신난월, 신은숙, 안승희, 유완진, 이정희
12회	김대건, 김신우, 김일영, 김조성, 민명임, 신명희, 오형철 옥정남, 우홍길, 윤성노, 이성순, 이순우, 이정희, 임순성 장광웅, 정용오, 정재균, 조병숙, 최승은, 최창목, 황순오	전경숙, 정현삼, 채영주, 최국환
13회	고명식, 김길영, 김태종, 이규선, 이우식, 최승기, 최호순 홍성구	33회 김병호, 박경록, 소정우, 유정순, 윤종배, 이보형, 이준복
14회	김영일, 김인덕, 김진행, 류효성, 박찬임, 상경숙, 안해봉 이강련, 전봉선, 최인환, 최종택, 홍성철	이종실, 임양순, 최수향
15회	김용의, 김태영, 박인호, 송현숙, 이명숙, 이인석, 정해성 조두섭	34회 김보원, 김영미, 김용수, 노영화, 류지숙, 박경아, 박상권
16회	김제성, 노상섭, 박상환, 박종애, 신규연, 윤영위, 조연심	백희숙, 임혜숙, 이영은, 정성아, 조형권
17회	김상집, 신승백, 심상근, 양희익, 이동우, 이희정, 인익진 전상훈	35회 김경실, 박민령, 박소영, 손은경, 양정희, 허진욱
18회	권영철, 남애숙, 문형진, 박인환, 양만기, 여운숙, 오영신 육득윤, 임태영	36회 강경애, 김미향, 박미현, 박종구, 방극상, 양성운, 유복진
19회	고문찬(고재무), 남윤수, 이석명	이명숙, 정현희, 홍성원
20회	민태형, 방금숙, 송열호, 이길만, 이종훈, 장영철, 정동천 정영수, 최용철, 홍철수	37회 강정임, 박수경, 백수형, 서승희, 이경모, 이민석, 한덕희
21회	김동연, 김동학, 김진자, 노재하, 백기홍, 송주식, 송진웅 신길득, 안병현, 우건상, 이만형, 이상준, 이승호, 장창만 한찬수	38회 김수규, 성치순, 윤상배, 이강국, 이창은, 현수윤
22회	김종궁, 박동우, 박미란, 오기환, 이영옥, 장상대, 장용운 정태화	39회 권연정, 김명철, 김영혜, 이용준, 전병선, 주훈정
23회	김봉래, 김순현, 박영근, 박찬종, 송명숙, 임창영, 이원길 천경호, 제갈희, 최경선, 최용진, 한병철	40회 성종호, 이필상, 이태상, 장정수, 최성철
24회	강창주, 신용철, 안병권, 양성철, 임철빈, 홍순철, 홍용기	41회 박영진, 신옥숙, 신유미, 이미경, 이명희, 이종혁, 이호섭
25회	고성권, 권세형, 김선열, 김형욱, 손현우, 이승정, 임흥기 조대현, 조석현, 한덕화	최진희
26회	김봉일, 김영호, 김유선, 김윤수, 김재역, 김재정, 김정수A 나종우, 박주돈, 양승훈, 이강옥, 이기평, 이종량, 정기춘 진희역, 최옥숙, 최종배	42회 김록원, 남은정, 민명기, 박상근, 송성훈, 윤지연, 이창경
27회	김재식, 김창식, 염승호, 이승목, 전명수, 최경희	임태규, 황인영
28회	기병서, 김경완, 김형준, 박용석, 변순희, 이병수, 이석원 오상기, 장민수, 조한균, 한성호	43회 김중호, 송세현, 한주희
		44회 김보영, 김수길, 신보경, 양미선, 유경미, 정영자, 정의찬
		45회 권성원, 권영삼, 김지하, 박성희, 이상영, 조동환, 조태원
		조창균, 홍정은
		46회 강병균, 김세영, 김준희, 염승환, 이동훈
		47회 김시우, 안지현, 이영이, 정화웅, 한원선
		48회 정혜림
		49회 강령아, 서효진
		50회 김정아, 박주현, 임현균
		51회 김나연, 박경태, 박병언, 장진, 황초희
		52회 김혜연, 박인, 이보람, 최윤희
		53회 박연주, 정유경
		55회 심재선, 이선구
		56회 서지영
		58회 고민혜, 김주연
		60회 김수진, 김예슬
		61회 강형식, 양대형, 정주호
		62회 박제혁
		63회 김세민, 이현택
		64회 박세영, 박수진, 이재찬, 정무영
		65회 강지선, 박기현, 송우석, 전차희, 박성현
		66회 양지수

2024-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청호 손동헌)	1,000,000	약학	강지원
2	본동문회(김명섭)	1,000,000	약학	김성용
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소은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시은
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창겸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하경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희선
8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문해일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박정은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변경원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서장호
12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신범수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양지웅
1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엄윤정
1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오동호
16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유연중
17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나연
18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승재
19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자연
2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혜윤
21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장지운
22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정시엽
23	손의동명예교수 장학금	1,500,000	제약학	강민혁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4	28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조우진
25	28회 동기회	1,000,000	약학부	최규현
26	32회 동기회	1,000,000	약학부	최은비
27	26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고영욱
28	26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조성근
29	부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송기철
30	강서동문회	1,000,000	약학부	황규찬
31	큐엘파마	1,500,000	제약학	김하연
32	큐엘파마	1,500,000	약학	전재완
33	칼라무스	900,000	약학	서동완
34	칼라무스	900,000	약학	윤지현
35	칼라무스	900,000	약학부	이승민
36	칼라무스	900,000	약학부	이승현
37	칼라무스	900,000	제약학	이윤상
38	칼라무스	900,000	약학	이은별
39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김소연
40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지 은
41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최선호
42	약제반	1,000,000	약학	윤정빈
43	약제반	1,000,000	약학	장혜정
44	생약반	1,000,000	제약학	김예찬
45	생약반	1,000,000	약학	한윤구
합 계		45,900,000		

문명이 부른 곳으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된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A good cry lightens the heart
실컷 울고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눈물이 흐를때는 뇌내의 화학물질인 엔도르핀과 코르티손이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한다.
눈물이 흐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감을 느끼게된다.
오늘의 이 순간도 언젠가 되돌아 보게될것이다.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박희용(23회)
편집위원

기본 상식조차 정제불명 트렌드라는 괴물에 휩쓸려버리는 시대,
세상 변화에 둔감해 손해 보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지.
그리하여 나는 꼰대다. 제주 갈 돈이면 동남아 가고 남는다는 시대,
우리는 동남아 가고 남을 돈으로 제주 한번 더 가기로 했다.

임성호(36회)
편집위원

임기를 마칩니다. 공사다망, 우여곡절, 일도 많고 실수는 더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연말의 어려움을 겪고 25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동문들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없던 힘도 짜내어 새 살이 돌아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선후배님들, 깊숙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반회원으로 돌아가 제 몫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our NOVA LIFE partner,
We light up your NOVA LIFE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대한민국 1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Hanmi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초 PN과 가교HA가 만난

#볼륨부스터

#PN필러

르네필®

Ultimate Plus ●
얼티밋 플러스

Ultra Plus ●
울트라 플러스



● Deep Plus
딥 플러스

● Light Plus
라이트 플러스

차별화된 무균 포장에 필요하십니까? BLOW-FILL-SEAL 기술이 해결 방안입니다!

액체 및 반고형 의약품의 기존 1차 포장 방법과 비교해보시면, Blow-Fill-Seal 무균 포장 기술은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공정입니다.

bottelpack 시스템은 플라스틱 용기에 최적화된 무균 충전이 가능하고 단일 시스템에서 성형, 충전 및 밀봉 공정이 가능합니다.

Blow-Fill-Seal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mmelag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rommelag.com

(주) 이노텍 시스템
전화: 031 - 434 - 7007
이메일: jjlim2169@innotechsys.co.kr





하이텍팜

High Tech Pharm

미국 FDA / 유럽 CEP 인증

“건강증진에 공헌하여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하이텍팜은 세계 최고의 카바페넴계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admin@caupharm.com